



| | | | | | |
|---|-------|--|--|--|--|
|  | | 보 도 자 료 | |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| |
| | | 배포일자 | 2021년 2월 15일(월) 총 2매 | | |
| 담당 부서 | 보육정책과 | 담당자 | • 보육기반팀장 홍정숙 ☎440-2896 • 담당자 이주영 ☎440-2898 | | |
| 사진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|
| 보 도 시 점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

인천시, 모든 어린이집에 소독비 · 마스크 지원

- 관내 어린이집 1,942개 대상,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-
-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에 따라 기자재 구입 지원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소독비,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우선 시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1,942개소에 소독비를 연 5회 지원하고,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마스크 훼손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비치용으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용 마스크 구입비를 1인당 10매씩 지원한다.
- 이는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, 관내 모든 어린이집은 주소지 관할 군·구청 보육 담당부서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-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‘보존식 보관 의무’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, 현원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431개소에 보존식 냉동고와 보존용기 구입비도 지원한다.
-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영유아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해, 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.
- 이에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설비 구입비를 지원해 각종 감염병과 급식을 통한 식중독을 예방하고,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과 확산을 방지하며, 새롭게 보존식 보관 의무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.
-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어린이집 방역물품 및 보존식 기자재 지원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”이라며 “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< 남동구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사진 >



< 어린이집 방역 사진 >

